

폴란드의 음주문화와 음주문제 대책



조 성 기
(KARF 경영기획본부장)

1. 폴란드 사람처럼 마셔라

서부 유럽과 북미에 사는 사람들은 “폴란드 사람처럼 마셔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술’ 하면 서구인들은 폴란드 사람들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폴란드 사람들처럼 마시는 과음행위는 중국에 가서는 자기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가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00년대 후반의 성곽, 영지 속에서만 술을 마셨다

■ 목 차 ■

1. 폴란드 사람처럼 마셔라!
2. 폴란드 국부의 원천이었던 양조업
3. 19세기에 시작된 폴란드의 절주운동
4. 음주를 통제할 수 밖에 없었던 폴란드의 역사
5. 새로운 사회주의 시스템을 건설한 주정뱅이들
6. 정치문제가 된 사회주의 국가의 알코올 문제
7. 봉건시대의 음주문화가 수백년 지속된 폴란드
8. 도시화와 산업화가 폭음과 과음을 불렀다!
9. 학생폭동이 만들어낸 폴란드 청년의 음주문화
10. 술에 관한 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없다!
11. 술로 인한 피해보다 혜택이 더 많다는 폴란드인
12. 술 없는 인생을 생각지도 못했던 폴란드인들의 변화

유럽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처럼 마신다.”는 말은 신교도들이 따르는 절주 규범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야성적인 술잔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절제하지 않고 마시는 술이나 무책임하게 마셔대는 술이 폴란드인들의 문

화 속에 자리 잡았고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폴란드인들은 그와 같은 폴란드식 음주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알려면 나폴레옹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들 한다. 스페인의 협곡에서 폴란드 기병대가 영웅적인 돌격을 감행했을 때 프랑스 황제가 “폴란드 사람처럼 마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그 말은 황제의 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 말은 당초에 황제가 말할 때와는 달리 역설인 말이 되었다. 황제는 전투에서 폴란드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기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한 것이기도 했고, 폴란드인들이 그 당시에 술도 매우 적당하게 마셨기 때문이었다.

폴란드 군대와는 달리 그 때 프랑스 군대는 부도덕한 행동을 하거나 전력이 약화될 정도로 심하게 마셨었다고 한다. 오늘날 가끔 음주량 유럽 1위를 프랑스가 차지하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나폴레옹이 말한 대로라면 폴란드 군인들은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와 언제 마셔야 하는 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해가 거듭됨에 따라 칭찬은 오히려 모욕적인 뜻으로 변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술과 문화, 정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 관계가 크게 변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술은 어느 나라던 그 나라의 모든 사회사, 문화사, 정치사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폴란드 국부의 원천이었던 양조업

수세기 동안 폴란드에서는 술의 생산과 유

통을 집권자들이 통제했다. 중세 초에 술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군주가 독점했다. 그렇지만 1300년대 말에 귀족의 세력이 왕족을 제치고 팽창하였다. 당시 귀족들은 각각 10%의 인구를 대표하는 세력들이었다고 한다.



고딕양식의 볼토우 성

폴란드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상류계급이 왕을 선출했다. 그러한 폴란드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세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자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차 늘려갔고 경제적 혜택을 포함한 특권들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 그러한 특권 중 하나는 술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것이었다.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 내의 생산과 유통권을 거머쥐었던 것이다.

1600년대 경제에서는 술에 대한 특권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점점 커졌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달리 폴란드의 곡물이 서부유럽으로 수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잉여농산물이 국내에서 소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값싼 증류기술이 발전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곡물로 만든 증류주가 많이 생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귀족 영지의 농노들은 자신들의 지

주들이 소유한 지역의 술집에서만 술을 마셨다. 그 당시 폴란드의 술집은 지금에는 여관을 의미하는 인(Inn)이었다. 대체로 1층에서는 술을 팔고 2층에서는 숙박을 하는 형태였던 것이다. 농노들이 술을 마시면 지주가 돈을 벌고, 다시 돈을 번 지주가 농노들에게 일정부분 급여를 올려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었다는 것이다.



1800년대의 폴란드 풍차

그러한 술의 생산과 소비 메커니즘이 1800년대까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그 때 폴란드의 봉건농업은 서부유럽의 곡물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의 영지에서 술이 영주들의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폴란드 국부의 원천이 술이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 1800년대 경에 이르면 술 소비량은

1인당 9.6리터에서 38리터로 치솟게 된다. 비룬(Wielun)지역의 경우 48리터가 된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매일 전체 주민이 소주 1병을 예외 없이 마셨다는 것이다. 부인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1일 음주량이 몇 병이었는데,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폴란드에서 술 문제는 유대인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법적 제약이나 관습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수익이 되는 직업은 지방의 지주에게서 술집을 임대하여 경영하는 것 뿐이었다고 한다. 제일교포들이 일본 대도시에서 빠찌코를 경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봉건농노들은 술을 팔아서 직접 이익을 자신들로부터 챙기는 수탈자를 폴란드인 지주들이 아니라 유대인 술집주인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반봉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술집을 불태우는 행위가 농노들의 분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일이 되었던 것은 그러한 연유에서다.

유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폴란드 지주들이 이익을 실제로 챙긴 것이었는데, 먹고 살려는 노력을 한 대가를 유대인들이 툭툭히 치렀던 것이다. 2차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방관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술집의 역사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3. 19세기에 시작된 폴란드의 절주운동

1800년대 중엽에 벌써 폴란드 최초의 절주운동이 탄생되었다. 우리나라의 절주운동본

부가 설치된 것은 2000년이 넘어서였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과 선진성을 가늠할 수가 있다. 폴란드의 절주운동의 특징은 폴란드의 종교적 특성과 국민성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먼저 카톨릭 교구가 조직하고 시작한 일은 대학생 기숙사에 금주규범을 시도한 것이다. 전체 기숙사의 30~50%가 그러한 규범에 따르게 되었다. 1800년대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이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다. 특히 그러한 규범은 러시아령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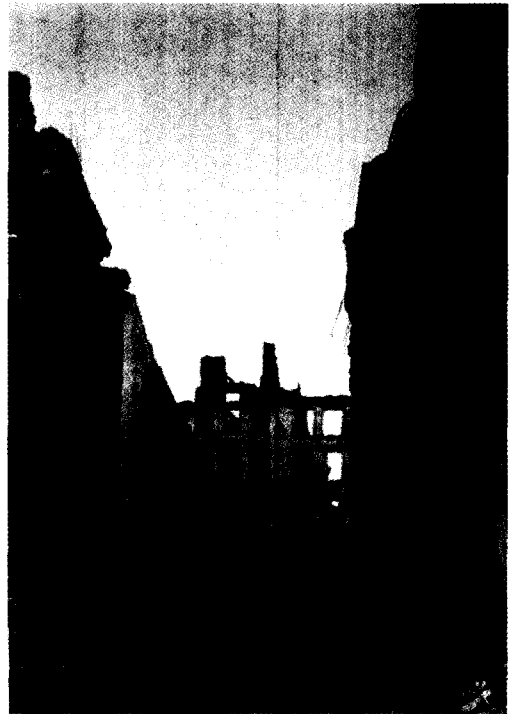
일부 교구에서는 절반이나 되는 주민들이 금주를 맹세했다. 절주운동은 알코올로부터의 독립이 나라의 독립을 강력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활성화된 측면도 있었다. 3개의 강대국에서 나뉜 조국을 보면서 폴란드인들은 절주메시지에 심취했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이 되면 그러한 운동이 쇠락하게 된다. 그러나 절주운동은 사회주의 정치와 노동운동으로 유지되게 되었다. 알코올에 대항한 폴란드인의 투쟁은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절주운동이 갑작스레 순간적으로 붕괴된 것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술 소비에 문제가 된 사회환경의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술 소비는 당시 유럽에서 큰 관심을 끈 물질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술 소비량을 줄였는데, 폴란드도 1차 세계대전 직전에 1인당 3.7리터 정도 마시는 것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정말로 큰 변화였다.

4. 음주를 통제할 수 밖에 없었던 폴란드의 역사

1918년에서 1939년까지는 폴란드의 독립 기간이었다. 1918년 독립을 쟁취한 이후 알코올 문제가 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1920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었고, 정치경제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그 때 국회에서는 주류판매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국가가 알코올 생산을 독점했다.



1944년 폭동 당시의 바르샤바, 파괴된 도시에서도 음주량이 증가했다.

알코올 법은 음주연령제한, 판매점 수 등 많은 규제를 도입했다.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조항까지 있었다. 1930년 경 폴란드에서 술 판매가 금지된 지역은 전체의 10%

에 달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비량이 매우 적었지만 폴란드인들의 절주는 아주 광범위했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금주법이 폴란드가 지향하는 목표였다고 한다. 당시 금주를 지지하는 잡지들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시도된 음주반대운동을 기사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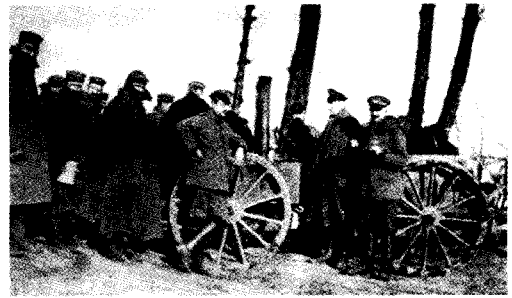
그렇지만 1930년대 폴란드의 음주반대 운동이 그다지 강력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술에 대한 통제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정부예산을 지원하자면 술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과세에 기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술을 자유화하자 당장 술 소비는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국가든지 규제는 술 소비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공황기에는 물론 술 소비가 1인당 1리터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1938년의 자료를 보면 1인당 술 소비량이 1.5리터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전쟁 중에 적당히 마시는 관행도 폴란드에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폴란드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암시장에서 술 판매가 늘어났다. 암시장의 시장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전시 중의 배급제도, 불안정한 심리상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의 급락 등이 이유였다.

암시장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활용하였던 것이다. 암시장이란 대부분 국민들이 정부가 제시한 질서에 불복종하는 관행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밀조주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고 큰 규모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밀주를 살 수 있었으니 말이다.

증류주 쿠폰은 농산물과 교환되었다. 나찌 독일이 폴란드의 통치시스템 중 하나로서 이



술로 폴란드를 마비시키는 전술을 사용한 독일군

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다. 나찌 독일은 이러한 정책이 술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 폴란드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전쟁말기에는 알코올이 폴란드의 게릴라 전사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1944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폴란드 군당국은 불법 증류장들을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군당국은 근무 중에 술에 취한 병사들은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적 강제장치를 마련했다.

폴란드인들의 힘든 역사에서도 술은 역시 위안을 주는 것이었지만 강력하게 통제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폴란드의 술에 대한 통제는 역사적 상황이 많이 작용했던 것이다.

5. 새로운 사회주의 시스템을 건설한 주정뱅이들

폴란드 알코올의 새로운 사회사는 전후에 쓰여지기 시작했다. 1944년 국가가 알코올을 다시 독점하기 시작했다. 국유화를 선언하고 나서 정부는 알코올에 대한 생산, 유통, 배분을 완전히 장악했다. 국가가 술을 통제하자 절주운동은 가라앉았다. 술의 생산과 판매가 자유화되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형국이 벌어

졌다.

폴란드에 여기저기 많았던 절주운동 단체들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되었다. 결국 하나만 남았는데 ‘폴란드 국립 반알코올위원회(The Polish National Anti-Alcohol Committee)’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았다.

처음에 정부는 알코올리즘을 자본주의의 잔재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진보함에 따라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전제와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기대와는 달리 만취자들이 증가했다. 특히 노동자 계급에서 주정뱅이들이 증가했다. 폴란드에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 시스템의 상징인 거대한 건설공사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폴란드 사회주의의 상징물들을 주정뱅이들이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1950년대 중반 정치적 해빙기 때 과제로 등장하였다. 알코올리즘을 질병으로 보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 일반적인 관념이었다. 미국에서 일반적이었던 질병관이 늘어만 가는 폴란드의 알코올 문제를 설명하기에 알맞았던 것이다.

그 당시 폴란드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알코올 의존자들에 대해 범죄자 취급하던 것을 강제치료의 대상으로 바꾼 것이었다. 만취자들이 이제 폴란드에서는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소련에 있는 ‘만취자 쉼터’도 도입되었다. 술이 깰 때까지 보호를 받는 곳이 벌써 50년 전 폴란드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조처들은 알코올의존자들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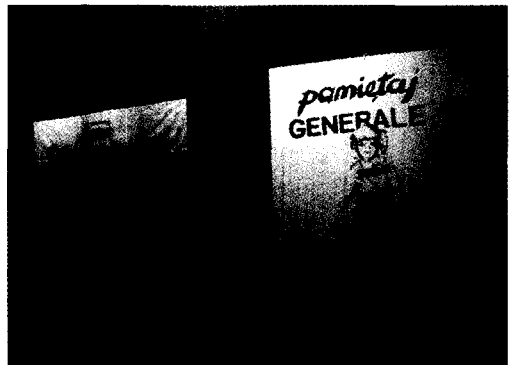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모스카레비츠(Moskalewicz) 등의 자료를 보면 “폴란드에서는 아무도 알코올 의존자들이 자신의 병 때문에 비난받지 않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우리와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변화인지 놀라울 지경이다. 우리는 아직도 알코올 의존자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고, 그러한 질병관은 일부 학계나 치료계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말이다.

6. 정치문제가 된 사회주의 국가의 알코올 문제

알코올 문제가 의료의 문제로 되자 오히려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 차원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알코올 문제는 폴란드에서 점차 빛을 잃어갔다. 이제 공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알코올 의존증이 질병이라는 입장이 도입된 이후 합법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검열이 시작될 수 있었다.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통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스터, 공산주의도 국민에게 술을 팔았다.

해 진다. 1980년대 말의 어느 여름, 폴란드의 유명한 '솔리더리티 운동(Solidarity Movement)'의 태동을 촉발한 파업이 일어난 후에 알코올 문제가 다시 사회문제의 표면에 등장하였다.

사회운동과 함께 과제가 되자 알코올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변한 것이었다. 폴란드의 사회주의 체제는 국민들에게 술을 더 마시게 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국가의 세금을 더 쉽게 걷기 위해서 국민이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는 것을 조장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정부는 어쩔 줄을 몰랐다.

이제 폴란드에서 알코올리즘은 구조적이자 시스템적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술 문제는 단순치 않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역학조사 결과로 입증되었으니 정부도 할 말이 없어졌다.

폴란드의 전후 술 소비량의 증가는 서부유럽이나 북미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를 변호할 근거는 없었다. 정부는 즉시 알코올의 판매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생산량을 줄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열망과 사회주의 체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도덕적이라는 위치에 서고자 임시방편으로 한 조치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쨌든 당시 폴란드에서 음주량의 증가는 생산성의 하락과 무질서의 만연상태를 낳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폴란드의 알코올 사회사를 살펴보면 조금 색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회문제가 문

화적 범주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알코올 문제가 과학적인 역학조사결과가 있는 것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술 문제는 때에 따라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완전히 무시될 수도 있었다.

7. 봉건시대의 음주문화가 수백년 지속된 폴란드

폴란드인의 음주사를 보면 과폭음은 과거 봉건시대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는 서부유럽과 북미대륙의 음주소비 패턴이 폴란드로 유입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 1800년대 중반에 1인당 술 소비량은 12리터였다고 한다. 그것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4리터로 줄었다.

전쟁 중에는 2리터로 더 줄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음주량이 늘었는데, 1950년에 3.0리터, 1980년에 8.4리터로 늘어났다. 1980년대 초에는 6.4리터 정도였는데 1990년대 들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폴란드인들은 독한 증류주를 주로 마신다. 1938년에 전체 술소비에서 증류주가 차지하는 몫이 88%, 1950년대에는 78%, 1960년에는 60%로 계속 줄고 있다. 와인과 맥주는 통상 폴란드인들이 많이 마시는 술이 아니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맥주소비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래도 폴란드인의 정서에 맞는 술은 보드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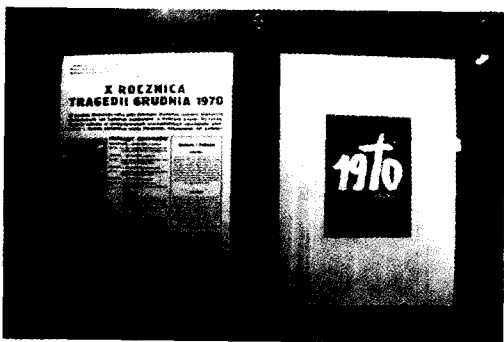
음주빈도는 다른 유럽인들에 비해 많지 않았다. 1980년대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1달에

1번 정도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남성의 40%정도, 여성의 20% 정도는 1주일에 1번이나 그 이상 마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폴란드인의 술마시는 정형은 단숨에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하게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폴란드에 다른 유럽사회에 있었던 부르조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폴란드의 귀족들은 게으른 생활방식과 부를 표현하는 것이 일어었다고 한다.

과음은 귀족들의 권리이자 하나의 의무였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노래가사에는 “술의 바닥을 보지 않는 사람은 회초리로 두 대를 맞아야 한다”, “그는 마셨다. 그는 바닥까지 마셨다. 신이여! 그를 축복하라!”라는 것이 있다.

1700년대에 폴란드에는 손잡이가 없는 와인잔이 유행하였다 한다. 술을 받으면 놓을 수가 없었고 다 마셔야 했던 것이다. 술 마시기 대회도 있었는데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폴란드의 왕 아우구스트 2세는 우승자에게 ‘힐 독수리’를 하사했다고 한다. 그러했으니 폴란드인들이 폭음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1970년대 발행한 지하신문

이러한 음주패턴도 해가 감에 따라 변해갔다고 한다. 1960년과 1980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1인당 음주량은 두배로 늘었지만 한 번에 보드카를 200그램이상 마시는 사람이 60%에서 30%로 줄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8. 도시화와 산업화가 폭음과 과음을 불렀다!

폴란드인들의 음주행태가 변하는 것도 산업화와 도시화가 관건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인구의 2/3가 지방에 살았지만 1990년대에는 70%가 도시에 살게 되었다. 195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때 문화적 행태도 크게 변했다고 한다.



폴란드의 도시, 도시화는 술 소비를 폭증시켰다.

폴란드의 인류학자인 체빈스키(Czerwinski)는 그러한 변화를 지방화라고 하였다. 도시로 이주한 지방민들은 독한 술을 한번에 마시는 전통적인 음주행태를 도시로 옮겨 놓았다. 도시의 노동환경은 이주민들의 음주생활에 전기를 가져왔다.

농사일과는 달리 제조업에서의 노동시간은 정해진 것이었다. 매주, 또는 매월 봉급을 받는 젊은 이주민들에게 퇴근 후 여가시간이 주어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전에는 일요일 이외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여가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농사일을 할 때 폴란드의 농부들은 일요일 미사를 마치고는 바로 술집으로 향했었는데 이제 그 일요일의 축제를 매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누가 누군지 다 잘 알지만 도시에서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사회적 통제도 없고 시간이 있는 곳에서 폴란드인들은 과음을 일삼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로 온 이주민들은 호스텔에 살았다. 돈을 모아 독립적인 아파트를 얻기 전까지 몇 명이 방 하나에 부엌하나가 딸린 호스텔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한 공동생활은 만취상태, 폭력사태, 범죄를 발생시켰다. 또한 음주습관도 변할 수 밖에 없었다. 작은 아파트의 생활, 공장에서의 빡빡함은 자연 폭음을 유도했던 것이다.

폴란드의 여성은 원래 연회에 참석했을 뿐 과음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시골처녀들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1700년대의 폴란드인 남성들은 술을 거절해서는 안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적당하게 마시거나 축하하는 의미로 잔에 입을 대는 정

도로 그칠 수 있었다고 한다.

폴란드 남성들에게는 큰일 날일이었지만 여성들은 받은 술을 테이블 밑에나 접시에 버리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폴란드 여성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폴란드의 2세대, 다음세대의 음주를 막을 길이 없다.

1960년대 조사자료를 보면, 폴란드 여성은 남성보다 1/7정도를 마셨다. 그런데 1989년의 자료를 보면 1/4에서 1/5로 그 간격이 줄었다.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여성음주는 300%가 증가했고 남성음주는 7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음주의 증가는 전후 여성해방과 관련이 있다. 1950년과 1990년 사이에 노동력에서 여성 비율이 30%에서 46%로 늘었다. 의사, 교사의 직업에서 여성은 80%를 점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성파별을 없애는 것을 구호로 하였다.

특히 1950년대에 여성은 남성과 같은 직업을 갖도록 하였다. 그 당시 트랙터가 여성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붙이고 폴란드의 들녘을 달렸다고 한다. 폴란드 여성이 오락, 성해방, 흡연, 음주를 즐기는 것이 여성의 지위변화를 상징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9. 학생폭동이 만들어낸 폴란드 청년의 음주문화

전후 폴란드는 소수민족, 하층민, 여성, 청소년 등의 해방기였다고 보면 틀리지 않았다. 여성은 남성이 했던 행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다른 가치를 추구했다.

학생들은 1968년 폭동을 일으켰다.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사회적 정의, 평등, 자유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바르샤바대학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한달이나 시위는 계속되었고 폴란드의 청년들은 별도의 세력으로 분류되었다.

그들은 성해방, 술과 마약의 사용 등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 1960년대에 폴란드 청년의 문화는 한마디로 술에 취한 문화였다. 부모세대는 보드카를 마셨지만 청년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셨다. 그들은 낮은 알코올 농도의 술을 마셔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문화라는 상징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1960년과 1980년 사이에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음주량이 많고 금주자들이 적었다고 조사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상징은 평화와 비폭력이지만 실제 문제는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90년대부터 청소년음주는 폴란드 어른들의 관심사였다고 한다. 이는 그 때부터 청소년음주가 문제가 될 정도였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실제로 청소년음주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연령이 폴란드에도 있다.

15세 아래 청소년은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된



청소년 음주를 금하려고 노력하는 폴란드의 카톨릭 신부들

다. 와인은 18세, 보드카는 20세가 가능한 연령이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규범이 지켜진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성평등, 일반적 차별타파가 시작된 이후 소년과 소녀들 간에 차이는 더 없어졌다.

폴란드의 법적 음주연령은 18세이다. 이는 정부와 카톨릭 교회가 강요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금주맹세를 시키고, 부모들이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다. 1984년도의 조사 자료를 보면 40%의 부모들은 술에 대해 자녀들과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가 술에 대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두 대졸 부모들이었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친근함이 청소년 음주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폴란드 청소년들도 또래들과 음주를 시작하고 반복한다. 부모들은 실제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면 옳다.

이러한 상황이 폭과음을 하는 성인을 낳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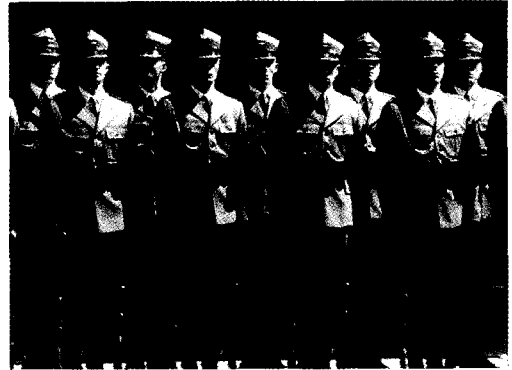
10. 술에 관한 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없다!

사회주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폴란드에서 과연 '직업이 귀한 사람들이 술을 덜 마실 것'이라는 가설이 입증 가능할까? 1984년과 1989년에 실시된 전국조사에서 술을 덜 마실 것으로 기대되었던 직업은 다음과 같았다. 신부, 경찰, 의사, 교사, 판사, 당간부, 군장교, 기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그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은 많이 마실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했을까? 1984년에 당간부들의 53% 정도가 건전한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989년에는 그 39%로 적음주자가 줄었다. 다른 직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사회의 규범과 음주량 수준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는 있다. 가장 폴란드에서 많이 마시는 직업은 육체노동자들이다. 그 중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더 많이 마신다. 농부가 그 다음이다. 사무직 노동자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사회 통념상 낮은 계층의 직업종사자들에 과음자나 폭음자들이 많다. 그런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과음자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금주자도 적다. 그 이유를 폴란드인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서구의 유행을 좇는다고 해석한다. 한번에 많이 안마시지만 음주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과폭음이 늘고 있는 폴란드의 군인들

이제 폴란드에서의 음주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음주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음주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음주가 사회적 의무로서 필요불가결 했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여성도 청소년도 술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모든 직업종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직업상 힘든 정도에 따라 집단적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이제 그것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1. 술로 인한 피해보다 혜택이 더 많다는 폴란드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좋은 일도 많았고 문제도 많이 겪게 된다. 폴란드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술을 마시고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 언제 마시고 얼마나 자주 마시나? 음주에 대한 규범은 어떠한가? 음주행위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사회가 가하고 있는가?'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자료와 비교해보면, 폴란드인들은 문제가 더 크다. 정신장애, 폭력, 공공장

소에서의 만취행위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의 실태조사에는 숙취, 두통, 위장장애 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준인 지난 12개월간의 음주문제 조사에서 응답자의 1/3이상이 그러한 고통을 호소했다. 10%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항도 간단치가 않다. 가정폭력, 강도, 재산상의 큰 피해 등이 그것이었다.

물론 술로 인한 많은 즐거움이 있었다고 많은 폴란드인들이 동의했다. 60%이상의 폴란드인들은 술 때문에 분위기가 살았다고 하였다. 50% 이상은 긴장이 줄었다고 했고, 동료들과 가까워 졌다는 경우도 25%가 되었다.

이성문제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도 12%나 되었다. 감기나, 두통, 위장장애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도 각각 20%, 8%, 13%나 되었다. 폴란드인들에게는 술이 인생 살이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간단한 질환의 처방으로까지 사용되고 효과가 있다고 믿는 물질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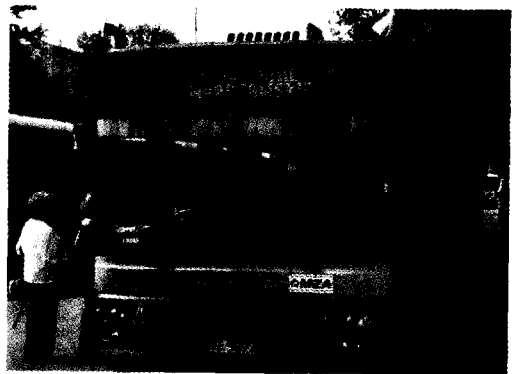
폴란드인에게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좋은 점도 늘어나고 나쁜 점도 늘어나는 것 같다. 과연 폴란드인들에게 술이란 무엇인가? 수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있지만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빈도 면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12. 술 없는 인생을 생각지도 못했던 폴란드인들의 변화

원래 폴란드 사람들은 인생사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술 없이 보내지 못한다고 한다. 예

를 들어 술 문제가 있어서 금주를 맹서한 사람들조차 결혼식에는 술을 마련한다. 술은 건강, 우정, 솔직함, 어른에 대한 공경 등 중요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의미 있는 물질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술은 폴란드인들의 사회적 모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다. 가족을 단합하게 하



도심의 시내버스, 폴란드는 변화하고 있다.

고, 친구들의 우정을 더욱 더 깊게 하고, 이웃이나 동업자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폴란드인들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술을 마신다. 폴란드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된다.

사실 폴란드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술 마시는 문화였다. 그런데도 1840년대 경에 절주를 해야 한다는 정서가 처음 나타났다. 워낙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지만 폴란드의 음주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이미 폴란드인들은 사회문제를 논하면서 알코올리즘에 대한 사고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자 전통적으로 술을 마셔야만 하던 행사들이 술 없이 치러지기 시작했다. 카톨릭 교회가 먼저 세례와 성찬식에서 술을 없앨 것을 선언하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카톨릭 교회의 행사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이후

극히 일부가 되었다.

1950년대에는 질탕 마시는 행사였던 노동절 축하연이 술 없는 파티가 되었다. 노동절날의 금주는 정부차원에서 선포를 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데에도 있었지만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 노동절이나 다른 몇몇 경우에 행해지던 공식 축제행사가 사라진 것이다.

‘음주행사가 사라지면 축제행사도 사라진다’는 가설이 폴란드에서 입증된 것인가? 물론 그에 대한 답변은 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폴란드에서 공공적인 행사로서의 음주가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술 마시는 사회였던 폴란드도 1990

년대에 와서는 크게 변화하였다는 해석은 틀림이 없다. 취객으로 가득 찼던 폴란드에서도 새로운 음주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폴란드가 술 마시는 사람들과 안 마시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변화했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다른 유럽인들도 이제 정말 본래의 뜻대로 ‘폴란드사람처럼 마시라!’고 외쳐야 할 지경이다.

폴란드의 학자 ‘자셱 모스칼레비츠(Jacek Moskalewicz)’는 “술 마시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술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도 사람마다 다르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술에 관한 한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는 폴란드 음주문화의 변화는 폴란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唐詩감상 / 溫庭筠

동쪽으로 여행하는 사람을 보내며

거친 수자리에 낙엽 지는데
 그대는 浩然히 고향을 떠나나니
 바람은 漢陽의 나루에 높고
 해는 처음으로 鄧門山에 오른다.

이 江山에 과연 몇 사람이 있는가
 하늘 끝에서 외로운 배 돌아오리.
 언제쯤이면 우리들 다시 만나
 두루미술로 그리던 그대 위로하리.

送人東遊

荒戍落黃葉 浩然離故關 高風漢陽渡 初日鄧門山
 江山幾人在 天涯孤棹還 何當重相見 樽酒慰離顏

1) 浩然—마음이 넓고 뜻이 큰 모양. 2) 故關—고향의 關城. 3) 鄧門山—荊門山, 湖北省 江陵縣에 있고 옛날의 楚의 도읍지.